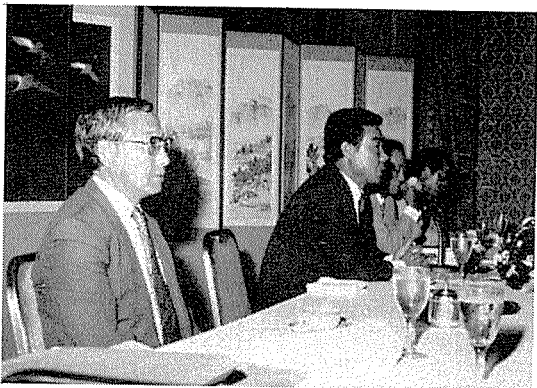


'88년까지 放送衛星으로 難視聽 해소



강연중인 崔順達 체신부장관

本會에서는 遞信部長官 崔順達 博士 招請 懇談會를 7月 19日 호텔新羅에서 開催하였다. 本會 會員社 代表 다수가 參席한 同懇談會는 中長期 遞信政策의 展開 方向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業界의 業務計畫 추진에 參考토록 하였다.

崔 長官은 우리 業界가 事前에 準備하고 開發 하여야 할 重要 政策方向에 관하여 매우 有益한 內容을 提示하였다. 그 가운데 業界의 關心을 크게 높인 部分은 앞으로 遞信部는 業界의 製品開發이나 施設投資가 一致하도록 미리 需要預告制를 實施하여 計劃生産를 誘導하며 遞信部가 電子産業 振興에 앞장서야 한다는 責任意識을 갖고 “컴퓨터 通信訓練 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電算要員의 訓練과 訓練된 人力의 業界進出 등 電算人力의 據點이 되도록 하겠으며 오는 88년까지는 放送衛星 保有國家로까지 實現을 推進하여 放送衛星에서 直接 家庭의 TV受像機로 連結하

여 全國의 어디서나 難視聽 地域이 없도록 推進 하겠다는 것 등 매우 重要한 內容을 담고 있다. 따라서 崔 長官이 同懇談會에서 行한 講演 要旨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우리 나라 電子産業은 20年 歷史로 比較적 짧은 期間이나 아시아 地域에서의 電子工業 位置 는 日本 다음으로 韓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우리 나라 電子産業이 있기까지 中間 에 여기 참석하신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會員社 代表 여러분의 手苦가 많았습니다. 最近에 施設 이 完全稼動되고 있고 우리 나라 輸出에도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現在까지의 우리 나라 電子産業은 家電 製品을 위주로 하였으며 稼得額을 基準으로 보면 問題가 없는 狀態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電子工業을 나이로 치면 幼年期에서 壯年期로가 는 過程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家電製品 의 위주에서 脫皮하고 附加價値가 높은 産業用 機器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하겠습니다.

체신부는 産業育成側面에서 電子産業을 主導하 는 부서는 아니나 管掌하고 있는 業務의 性格 으로보아 電子産業 發展에 크게 寄與하여야 한 다는 責任意識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신부 산하기관에서 年間 購賣하는 電子閱駢 通信裝備 는 1兆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購買力을 어떻게 活用 함으로써 우리나라 電子産業 의 育成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체신부의 当面한 課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신부는

앞으로도 체신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裝備는 우리나라에서 生産하는 國産製品으로 供給하여야 한다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內의 需要를 創造하고 業界의 技術開發도 可能하며 輸出餘力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強力하게 國産化를 推進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業界는 完製品의 導入보다 先進交換棧 設計技術등 앞서가는 源泉技術을 우선 導入, 우리것으로 開發하고 改良하는 体制의 구축에 力點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方法으로는 合作投資의 設立形式이나 日本과 같은 新製品 開發 研究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美國의 技術과 우리나라의 作業能率 내지 生産性을 加味하면 日本과 世界 어느 國民보다 生活 습관이 비슷한 우리가 日本과의 競爭이 可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海外研究所, 美國의 ITT, 벨 研究所(1년에 20명씩 5年間 派遣), 캐나다의 노던텔레콤, 스웨덴 엘릭슨등 世界的인 大企業체와 그 研究所에 雇傭을 통한 技術研修를 推進中에 있습니다. 체신부 산하기관의 物品購買는 原則적으로 独占을 止揚하고 철저한 公開競爭을 통해서만 可能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電子産業은 競爭하는 가운데 技術開發과 發展이 이룩되고 存立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신부는 업계 여러분이 製品의 開發이나 施設의 投資와 一致되게 미리 需要등을 予告하여 업계에서 計劃生産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通信은 컴퓨터와 데이터通信이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며 컴퓨터와 컴퓨터, 컴퓨터와 다른 端末棧을 체신부가 가지고 있는 通信網에 연결하여야 함으로 아무리 좋은 棧械라도 通信網에 연결치 않으면 使用할수 없는 棧械이므로 체신부가 이 分野에 앞장서야 한다는 責任意識을 갖고 “컴퓨터通信訓練센터”의 設立을 추진하여 모든 電算要員의 訓練과 訓練된 人力의 業界進出 등 電算人力의 據點이 되도록 하고 電算시스템에 對한 畚을 造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關聯棧器와 部品の 生産이 더욱 활발하여질 것입니다.

체신부의 当面事項은, 經濟社會開發 5次計劃의 마지막 해인 '86 年까지는 電話의 普及率

97.2%를 이룩하여 電話積滯를 完全解消하고 全國을 自動電話로 廣域化하며 各 우체국 마다 컴퓨터 端末棧를 設置하여 全國을 「온 라인」으로 連結되도록 하겠습니다.

'88까지는 經濟性을 檢討하여 放送衛星保 有國家로까지 實現을 추진하여 放送衛星에서 直接 家庭의 TV受像棧로 연결하여 全國의 어디나 難視聽地域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無線電波利用의 開放擴大와 아마추어 無線棧와 端末棧의 경쟁적인 市場 供給制를 추진 하겠습니다. 光通信의 研究開發도 技術導入을 과감히 하여 外國과의 競爭体制를 준비하겠습니다. 通信은 電子技術의 總和이고 最尖端 技術이며 電子技術의 精髓이므로 通信技術과 컴퓨터 기술의 開發로 情報化 社會에 체신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責任意識을 느끼며 “2000年代 通信技術의 靑寫眞과 그 方向”을 제시하는 작업을 체신부, 電氣通信公社, 通信技術研究所, ITT, 벨 研究所 合同으로 莫大한 資金을 投入 推進中에 있으며 確定되는 대로 業界에서 對備 可能토록 미리 弘報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法的 根柢가 마련 되어야 그 推進이 가능하므로 88年 12月 까지 時限으로 한 大統領令으로 電子通信開發推進(委)를 구성하여 交換棧 政策, 半導體推進, 國産化 推進등 정책을 정부와 關聯業界가 協議하여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通信서비스는 先進國 水準으로 가야하는 것이 目的이며 그에 따르는 關聯業界도 育成하여 世界的인 競爭에도 이길 수 있는 能力을 양성하는 데 체신부가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今年는 UN에서 定한 “世界通信의 해”로 世界各國에서 展示會와 發表會등 各種行事를 開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先進國이 되려면 우리 生活에 便利하게 많은 도움을 주는 “先進通信 시스템”을 가져야만 可能하다는 認識으로 全國民이 通信에 對해 더욱 理解하여 주시기바라며 이번에 KOTRA 展示場에서 國內外 40餘個 業체가 參加하여 烽火台에서 衛星까지”볼수 있는 在來館, 現在館, 未來館 등 “通信에 關한 展示會”에 韓國電子工業振興會가 後援棧關으로 많은 協助를 하여 주신데 對하여 感謝드리고 여기 계신 業體代表 여러분의 많은 聲援을 當부합니다.